

CT  
230.49  
7684x

#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칼빈주의적 비판

-그의 사역과 신학이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지도교수: 양 낙 흥



고신대학신학대학원

신 학 과

조 지 영

1998 학 년 도

 고신대학교



#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칼빈주의적 비판

- 그의 사역과 신학이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

지도교수: 양 낙 흥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12월

고신대학신학대학원

신 학 과

조 지 영

1998 학 년 도

조 지 영 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1998년 12월

## 목 차

###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칼빈주의적 비판

-그의 사역과 신학, 그리고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들어가면서 .....	5
1. 찰스 피니의 생애와 사역 .....	7
1) 찰스 피니의 생애 .....	8
2) 피니의 사역 .....	10
(2) 칼빈주의 신학에 대한 피니의 비판적 견해 .....	15
(3) 부흥에 대한 피니의 알미니안적 견해 .....	17
2. 피니의 신학 .....	21
1) 피니의 알미니안적 신학 원리 .....	21
2) 피니의 칭의와 구원 .....	23
3) 피니의 성화론 .....	26
(1) 로마서 7장 설교를 통한 성화의 원리 .....	26
(2) 완전 성화론(perfectionism) .....	29
3. 19세기 시대 정신이 피니의 사역과 신학에 미친 영향 .....	32
4. 피니의 신학과 사역이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	35
1) 미국 장로교 교단 분리의 원인 제공 .....	35
2) 교회의 세속화와 실용주의 .....	37
3) 체험주의 .....	38
맺으며 .....	40
참고문헌 .....	43

##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칼빈주의적 비판 (그의 사역과 신학, 그리고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 들어가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M. Lloyd Jones, 1889-1992) 목사는 1959년에서 1978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연구회(Puritan and Westminster Conferences)에서 행한 강연의 첫 해에 '부흥'을 강의하였다. 그는 1860년까지는 교회사에서 개혁주의 신학적 부흥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참다운 개혁주의적 부흥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부흥이 소멸된 이유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신학의 영향을 들고 있다. 개혁신학의 퇴조와 신학교의 문제를 부흥 쇠퇴의 다른 두 가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와 대등한 원인의 하나로 피니의 알미니안적 부흥에 대한 견해를 끄는 그의 평가를 접하면서 피니의 어떤 점이 그러한 평가를 낳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는 흥미가 생겼다.<sup>1)</sup>

또한 피니의 사역 이후 미국은 다양한 이단들의 등장과 유니테리안의 발흥, 자유주의 신학의 미국 유입을 겪었다. 이에 대한 비난이 피니의 신학에게로 돌아오고 있으며,<sup>2)</sup>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를 기점으로 미국 내 신학은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적 복음주의로의 신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까지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주었으나, 피니를 기점으로 사회의 문화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미국 교회사의 변화의 기점에 피니가 서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연인지 혹은 필연적 결과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피니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조금씩 다르다. L. G. 파커스트(L. G. Parkhurst)는 피니가 부흥에 일조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피니가 부흥을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오해에 대한 변호를 피니의 부흥론 추천사로 실었다. 그는 피니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를 말하면서 그를 옹호한다.<sup>3)</sup> 그같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떻게 기계적인 부흥을 이야기

1) D. M. Lloyd-Jones, *The Puritans* (Edinburgh, Scotland: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서문강 역,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7-18.

2) 피영민, "찰스 피니의 설교분석", 「그말씀」 1996년 11월호, 120.

할 수 있겠느냐 변호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부흥운동가들은 피니에 대해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가 일으킨 사역의 열매를 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한다.

웨슬리 듀웰과 같이 친 복음주이자면서 현대에도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피니의 생애와 사역을 놀라운 성령의 사역으로 평가하면서, 피니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sup>4)</sup> 그러나 피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피니의 신학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없이 단지 그의 사역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피니를 평가하고 있다.

미국 교회사에서 피니의 생애를 잘 요약하여 알려주는 예일대의 시드니 알스트롬 교수는 피니의 생애와 사역을 기술하기 전 “현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새로운 수단들(new measures)”을 소개하고 있다.<sup>5)</sup> 피니가 미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알스트롬 교수가 명명한 대로 현대 부흥의 모든 유형이 피니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유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그의 신학과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이러한 견해 차이도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한 동기가 된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가장 적합한 피니에 대한 평가가 될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가 과연 칼빈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간접적으로 이 논문의 관심은 사역의 열매가 신학의 신실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칼빈주의적 신학에 비춘 피니에 대한 신학적 평가와 비판일 뿐이며, 피니가 이룬 사역의 결과나 성령의 역사를 모두 회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가진 사역의 정신과 신학적 입장은 칼빈주의에서 떠난 것이기는 하나, 그가 가진 구령의 열정과 기도의 열심 등을 모두 거짓으로 규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말했듯이 신학

---

3)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Revival of Religion*. 김원주 역, 「찰스 피니의 부흥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3.

4) Wesley L. Duwel, *Revival Fire* (Michigan: Grand Rapids, 1995) 안보현 역,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08.

5)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 459-460.

의 차이 때문에 부흥을 반대하는 요소를 제공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당과 어떤 레벨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웨슬레나 피니처럼 몇몇 가지 신학적 사항을 혼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전능이란 없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 우월주의와 과당심에 그릇된 견해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죄도 범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한 관점에서만 피니의 사역과 신학을 재 조명하려 한다. 다른 관점 하에서 피니의 장점으로 부각될 것들을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며, 신학적인 오류를 많이 다루게 되어 피니에 사역 자체에 대한 양측면의 다양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그의 장점에 가려진 또다른 모습으로서 칼빈주의적 비판은 피니의 사역을 뒤따르는 오늘날 교회의 여러 면에 좋은 교훈을 줄 줄 믿는다.

이 논문의 핵심은 피니가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근거를 찾고, 그러한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 문제여서 그토록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독창적인 신학이 어디로부터 발전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피니의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영향력을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피니식 부흥운동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피니의 알미니안주의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찰스 피니의 생애와 사역

칼빈이 활동하던 시절,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나 예정과 같은 신본적인 칼빈 신학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는 알미니안주의가 태동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본주의에 반감을 가진 신학적 인본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동의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가 비록 인간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

6) 로이드 존스, 「청교도 신앙」, 22.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피니가 이런 신학적 인본주의를 택하게 된 것은 인간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명령을 간과하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의 칼빈주의 신학의 오류에 대해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그의 신학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미니안주의는 보통 사람들의 신학이다. 우리의 믿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신학적 난제로서의 선택적 예정과 제한 구속에 대해 사람들의 이성은 늘 도전해왔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인간 자신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미니안주의는 새로이 부활하는 것이다.<sup>7)</sup>

피니의 알미니안주의의 기초는 피니가 살던 19세기 황금기로 인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인본주의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신학과 사역에 드러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칼빈주의에 비추어 그의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고자 한다.

### 1) 찰스 피니의 생애<sup>8)</sup>

찰스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 1792-1875)는 코네티컷(Connecticut) 주의 워렌(Warren)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다. 1818년에 그는 애덤스시(Adams)에서 법률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7) William W. Sweet,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ulture: 1765-1840*(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Michael Scott Horton, *Made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ny, 1992).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서울: 나침반사, 1996), 50-51에서 재인용.

8) 찰스 피니에 관한 생애는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459-461.; Charles Finney, *The Memoirs of Charles G. Finne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76); ed. Helin Wesset,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G. Finney* (Bethany House Publishers, 1977), 13.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안보현 역,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108-149.



교회와 기도회에 나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29세 되던 그는 1821년 10월 10일에 영혼을 흔드는 회심을 하게 되었다.<sup>9)</sup>

회심 즉시 그는 자신의 변호사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변호인으로서 일하기로 작정한다. 사역을 위해 이후 잠깐 동안의 개인적인 신학 수업을 조지 게일 목사(George W. Gale)로부터 받고 1824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 받아 그후 8년 동안 순회 사역자로 섬기게 된다. 1832년까지 그는 이러한 순회 사역자로서 로마(Rome)와 유틀카(Utica)와 트로이(Troy)와 기타 여러 도시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뉴욕시의 캐덤 스트리트 교회에서 청빙 받아 사역하였다. 이후 그는 브로드웨이 장막교회(Broadway Tabernacle)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에서 1832년에서 1835년까지 목회를 한다.<sup>10)</sup>

그러던 피니는 1835년 뉴욕을 떠나 오하이오의 아사 메이헌(Asa Mahan)이 세운 오벌린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일관성 있는 훌륭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쪽으로 설교의 방향이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sup>11)</sup> 그는 뉴욕 목회와 오벌린의 강의를 겸하여 하던 시절에 그의 부흥의 원리를 담은 22개의 강의를 「부흥론(Revival of Religion)」으로 발간했으며, 또한 그의 조직신학 강의도 「조직신학 강의(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로 출간되었다. 그후 1851년부터 1866년까지 오벌린 대학의 학장으로 봉사했고, 1875년에 사망했다.

---

9) Charles G. Finney, *Memoirs*, 12-18;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13. 피니는 이때를 회상하기를 “1821년 가을의 어느 주일날 저녁에 나는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즉시 결말 짓기로,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기로 결심하였다.”

10) 그는 이 당시에 뉴욕과 로체스터, 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에서의 부흥으로 10만 명을 회심시켰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혹자는 피니의 저술과 사역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백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피영민, 「찰스 피니의 설교분석」, 113. 안보현 역, 「세계를 뒤흔든 부흥의 불길」, 109.

11) J. E. Johnson, “Charles G. Finney and Oberlin Perfectionism,” *Church History* 38 (September 1969), 47. 박용규, 「찰스 피니와 완전주의」, 「신학지남」, 1992년 겨울호, 136.에서 재인용.

## 2) 피니의 사역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은 말이 증명하지 않고, 사역의 원리로서 증명된다. 현대 보수적 교회는 그들이 신학이 고백하는 것과 다른 사역의 방법을 취한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면서도 그들은 인간이 마치 하나님께 나아올 의지가 있는 것 같은 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과 분리된 원리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니에게는 그의 신학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다. 피니는 자신의 사역에 신념에 차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방법론이 알미니안적이었듯이 자신의 신학도 일관성있게 알미니안적이다. 현대 교회가 그러한 피니의 모든 알미니안적 방식은 채택하면서도 피니가 채택한 신학은 배제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 (1) 피니의 사역의 알미니안적 요소와 그에 대한 칼빈주의적 비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가 부흥사로서 지낸 기간은 로이드 존스의 지적처럼 10년 정도뿐이었다. 오히려 그의 일생의 남은 부분은 자신이 만든 독특한 신학을 가르치고 변호하는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다.<sup>12)</sup> 그는 자신이 일으킨 부흥과 회개와 결단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인 신학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그러한 개인적 경험이 신학화 됨으로 그의 신학은 인간 이성<sup>13)</sup>에 제대로 부합되는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신학이다. 모든 알미니안주의가 인간 이성<sup>14)</sup>에 부합되는 보통사람의 신학인 것과 마찬가지로 피니의 신학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피니의 사역의 성공은 피니의 신학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신념에 찬 사역이 실패를 경험했더라면 자신의 신학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사역의 성공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낳았으며, 결국 피니는 자신의 경험을 체계적인 신학으로 재구성한다.<sup>14)</sup> 그것이 바로 그의 신학

12) 서문강 역, 「청교도 신앙」, 325.

13) William W. Sweet,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ulture: 1765-184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서문.

14) 박용규, “피니의 완전주의”, 132.

이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당신의 방법은 알미니안주의적이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간과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현대 교회의 사역자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무슨 소리냐? 나의 신학과 방법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를 보라. 당신은 바른 신학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 나는 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부흥이 나타났다. 당신이 적어도 나를 비난하려면 나만큼의 성과를 거두어라. 그리고 현대에 부흥하려면 적당히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학보다 영혼구원이 먼저이지 않는가?’ 바로 현대의 이러한 대답의 아버지는 찰스 피니이다.<sup>15)</sup> 리차드 홉스타터는 부흥운동을 통해 이단자들과 분열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해졌는데, 적어도 그들의 열매가 있는 이상 이단자들이건 분열주의자들이건 그들을 통제할 수 없게되었다고 말한다.<sup>16)</sup>

그는 자신의 회심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았음을 자서전과 회고록에 암시적으로 기록한다. 회심 당시 애덤스시의 조지 게일 목사의 설교는 마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여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였으며, 늘 모여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가 받은 칼빈주의 신학의 무력함에 인상은 바로 이 애덤스 시에서 형성되었다. 설교와 기도회의 무기력함이 바로 그가 강력한 설득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만든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 자신이 주도하는 부흥 집회에서는 교회에 나오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철저한 복음예의 순종을 설교했던 것이다.<sup>17)</sup>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피니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회심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도 감추어 읽었고 자신의 방 열쇠 구멍까지 막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았고, 성경이 자신을 도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성경이

15)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132.

16) Richard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1963), 85. 그가 말한 부흥운동이 바로 피니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17) Ibid. 6, 10.

자신을 도전하였고, 세속적인 삶과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문제에 직면했다고 한다. 18)

그의 사역에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몹시 신뢰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습이 제퍼슨의 북부지역 르 레이(Le Ray) 근처의 에반즈 밀즈(Evans' Mills)의 사역에서부터 나타난다. 19)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단해야 했던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요구한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나와 그리스도에게 서약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반대로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다는 분은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앉아 있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서로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들은 공공연히 구세주를 거절했다는 것과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겠다.’”<sup>20)</sup>

과연 우리 모두가 피니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가?<sup>21)</sup> 모든 사람이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피니의 인간관은 힘에 넘친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와 같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돌을 굴리는 영원한 저주아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깨끗한 인간관이 숨어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천국과 지옥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을 들어보고 지옥이 싫으면 화목하기로 작정하여 일어서면 되고, 아니면 웃으며 지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고 결정한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니가 보

18) Ibid. 10-13.

19) Ibid. 226. 그의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그의 사역의 후기에 1849년 런던에서 캠벨 목사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영국인도 자존심 때문에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 Ibid. 58-59.

21) 피영민, “찰스 피니의 설교분석”, 115. 피니 자신의 증생체험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였다.

고 있는 인간의 선택능력이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에게 선을 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물론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의 은혜이다. 인간이 심각하게 고심하더라도 인간의 죄된 본성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필요로 한다고 돌트 회의의 5개조는 밝히고 있다.<sup>22)</sup> 즉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힘과 원리이기는 하나 타락 이후에는 그 의지 위에 강한 죄의 편견이 있는 것이다.<sup>23)</sup>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요(갈 6:15), 새로운 창조(고후 5:17; new creation)라고 말했다. 창조라는 말은 전혀 없는 무에서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믿지 않던 신자에게 선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개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없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심 전 인간은 의지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일 뿐이다.<sup>24)</sup>

그가 사역하면서 쓴 독특한 “새로운 수단들(new measures)” 중 “구도자의 좌석(혹은 불안한 좌석; anxious bench)”은 구원받은 대중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졌다.<sup>25)</sup> 그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sup>26)</sup>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자존심 때문에 구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당장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이 구도자의 좌석이 등장하게 되었다.<sup>27)</sup>

---

22) Alan P. F. Sell, *The Great Debate: Calvinism, Arminianism and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김경진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30.

23) Christopher Ness, *An Antidote the Arminianism* (Sovereign Grace Publishers, 1974). 강귀봉 역, 「칼빈주의가 본 알미니안주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89.

24) Ibid. 90-91.

25)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460.

26)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173.

또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그는 교인들에게 혹 집회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자는 잘 관찰했다가 그대로 보내지 말고, 붙들고 대화하고 기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런 식을 많은 사람이 초대 되어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27)</sup> 기타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설교 방법이나, 부흥의 방법들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들이다.

피니는 자신들이 수동적으로 있는 한 성령께서 그들을 회심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는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sup>28)</sup>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스스로)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애쓰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직하고 엄숙하게 수락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sup>30)</sup>

피니가 말하는 회심자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떨며 두려워하고 그 죄악을 몸서리치게 후회하고,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의지뿐 아니라 삶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다. 그 결심으로 평생을 가야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굳건한 의지로 쟁취해야 한다. 피니는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결단을 피할 수 없도록 교인들을 몰고 가고 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실 모든 일을 끝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차례인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자율적이며, 의지적인 모습이 피니가 바라본 인간상인 것이다.

피니에게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은 인간의 반응을 강조함으로 약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은 있으나 또다른 하나 죄와 허물로 죽은(엡 2:8)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약화되나,

---

27) Ibid. 173-174.

28) Ibid. 188-189.

29) Ibid. 227-228. 그는 이러한 결단을 막는 것이 칼빈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그는 런던에서 전도할 때도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30) Ibid. 174.

하나님을 택하는 인간은 강화되었다. 그의 설교는 칼빈주의의 강력한 하나님 대신에 모든 새로운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간이 더 강조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의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은 그의 관점에서는 설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단 한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피니이기에, 인간의 나약함을 모르는 피니의 이러한 관점이 그가 알미니안주의자로 불리는 이유인 것이다.

## (2) 칼빈주의 신학에 대한 피니의 비판적 견해

피니는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만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사역 초기 아니 회심 전부터 칼빈주의적 신학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

1818년에 피니는 애덤스 시에서 법률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당시의 젊은 장로교 목사였던 조지 게일 목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피니는 개인적으로 그를 존경했으나 그의 칼빈주의 신학 관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 그의 영혼을 흔드는 회심을 1821년 경험하게 되었다.<sup>31)</sup>

칼빈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을 가슴에 안은 채 성경을 읽었던 피니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가 인도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그에게 바른 신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죽은 정통만 남았던 당시 칼빈주의의 책임도 어느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회심 후 사역 지원자로서 게일 목사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속죄, 중생, 신앙, 회개, 의지의 노예 상태(즉 전적 부패)에 대한 칼빈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일 목사는 끈질기게 설득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피니는 “나는 이러한 견해를 포용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라고 증언했다고 한다.<sup>32)</sup>

31)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460.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뉴저지의 프린스턴(Princeton)대학 출신인 조지 게일(George W. Gale)목사의 설교는 구식이었는데, 이 구식이라는 말은 곧 철저히 칼빈주의적인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는 교인들을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게일 목사를 평가하였다.

32)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49-50.

이후 공식적으로 장로회 사역자가 된 피니<sup>33)</sup>는 더욱 게일 목사의 칼빈주의 신학을 비판하였다. 피니가 게일의 신학을 비판한 두 가지 면은 이것이다<sup>34)</sup>. 첫째는 게일은 잘못된 신학을 교육받았는데, 그는 맹종형으로서 자신이 가진 신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니는 게일 목사의 서재의 책을 모두 검토함으로써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 더욱 불만스러웠는데, 법학을 공부한 자기의 이성적 논리에 이 신학서의 저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책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일은 이 신학의 원리를 의존할 뿐 자신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sup>35)</sup> 둘째로 피니는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자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sup>36)</sup> 성령세례는 사역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인데 이것의 점검 없이 사역자를 세우고, 단지 외적인 조건으로서 신학만 공부하면 되는 것에 관해 그는 불만을 표시했다.<sup>37)</sup>

그러나 그 자신도 개인적으로 성령세례와 소명을 확신하지만 누군가가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즉 이성적으로 그의 성령세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칼빈주의의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게일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의 오류를 증거하려고 시도했다.<sup>38)</sup> 그러나 게일 한 사람의 경우가 모든 칼빈주의 신학을 대표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즉 칼빈주의 목사들의 무능력과 성도들의 무능력이 곧 칼빈주의 신학의 무능력은 아니다. 그가 프린스톤의 신학교육을 받기 거절한 것에서 그가 정당한 칼빈주의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33) Ibid. 51.

34) 양낙홍, “찰스피니의 생애와 사상”, 90.

35)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52-53.

36) Ibid. 27. 피니는 자신이 회심한 이후 마음에 한가지 인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고 묻는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성령세례와 같이 의심의 가능성을 초월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37) Ibid. 53-54

38) Ibid. 54.



두 번째 성령의 세례에 관한 그의 관점은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증거로서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피니는 그것에 대한 검토는 주의 깊지 못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고,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고 부흥이 식어지는 것의 이유를 피니의 부흥 이전에 그들이 배운 신학적인 지식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을 나약하고 연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던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이러한 부흥의 식어 감은 바른 신학으로 부흥을 바라본 결과일 수도 있으며, 혹은 부흥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도 여겨질수 있는 문제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신학의 건전성을 사역의 결과로 증명코자 한다.<sup>40)</sup> 그는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신학의 정당성을 위한 증거로 이야기한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의 사역자들의 항변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한다. ‘하나님, 왜 피니 같은 신학을 소유한 자가 성공을 거듭니까? 왜 그러한 신학에 힘을 실어 주십니까? 왜 신학의 신실성을 증명하도록 우리에게는 큰 성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부흥 자체를 반대하는 오류는 주의해야 한다.

### (3) 부흥에 대한 피니의 알미니안적 견해

부흥론에서 피니는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몹시 비판한다. 그는 칼빈주의자들이 마치 천둥이나 번개를 자신들이 일으킬 수 없는 것과 같이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으로 이해했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부흥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을 바로 사용하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41)</sup> 그는 모든 신적인 것은 인간의 동의로부터 시작한다고 믿는다. 피니의 모든 견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발언

39)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20.

40) Ibid. 75. 피니는 자신의 신학의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좀더 나은 방법을 내게 보여 주시오. 당신들의 사역의 열매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는 증거를 보여줄 만큼 훌륭한 것이라면 나는 당신들의 견해를 따르겠습니다

41) 김원주 역, 「찰스 피니의 부흥론」, 23-24.

은 피니를 알미니안주의자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게 하였다.

그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며,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2)</sup> 그러나 그의 견해의 약점은 기독교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도우심의 은혜가 강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자존심이 순종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피니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은 그렇게 가소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는 인간을 하나님의 손안에 든 도구가 아니며, 하나님의 도구는 그저 진리일 뿐이며 우리는 능동적인 도덕적 행위자라고 본다. 회개는 당사자가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것으로 본다. “죄인이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십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증거이다.<sup>43)</sup> 그에게 있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는 우리인 것이다.

그의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마치 하나님이 이 과정에 필요 없는 분과 같이 말한다. 모든 방법은 화해하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다.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해결하는 가운데 기도의 영을 받게 되고 회개의 역사와 죄의 깊은 고백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sup>44)</sup> 그리고, 기도의 영을 받게 되면 참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참된 기도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는 기도라고 말한다.<sup>45)</sup> 그러므로 기도하는 바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그러기에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런 행동없이 기다리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

---

42) Ibid. 11.

43) 루이스 러머드, “설교는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말씀」 1996년 11월호, 109.

44) 김원주 역, 「찰스 피니의 부흥론」, 49-61, 46. 그에게 있어서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다. 감정이란 억지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꾸 생각하면 슬픔과 후회가 밀려올 수 있듯이 조작할 수 있다고 본다

45) Ibid. 64.

그러나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까지 그런 겸허한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 드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는 것이다. 46) 피니의 부흥의 방법과 기도에는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과 겸손이 설 자리가 없다.

그가 교회사 내에서 알미니안주의자로 낙인찍히게 한 유명한 발언 “참된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부흥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47) 물론 그에 대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그의 말에 대한 칼빈주의의 비난은 단편적인 것으로 그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이며, 그가 이후에 강조하는 기도에서 그에 대한 비난은 상쇄된다고 변호한다. 그리고, 부흥은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부흥은 온다고 말하는 겸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그를 옹호했다. 즉 피니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바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48) 그러나 참된 겸손의 진술은 ‘누구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이다. 참 겸손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집중케 하는 것이다.

피니는 그의 부흥론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섭리하시듯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수단 없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부흥의 법칙이 그러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49)

그러나 기도하기만 하면 부흥이 성공하고, 어떤 특별한 수단은 그 자체만으로 결과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수단이면 모든 부흥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분명 하나님을 배제한 견해이다. 또한 많

46) J. I. Packer,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England: Inter-Varsity Fellowship, 1961). 이장림 역,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10.

47) 김원주 역, 「찰스 피니의 부흥론」, 11.

48) Ibid. 3-4.

49) Ibid. 25.

은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자 피니의 책을 읽었다고 할 지라도 그의 방법만으로 부흥을 이룰 수는 없었다. 피니가 내세운 부흥의 방식이 참으로 그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찰스 피니의 사역에 있어서 그 원리에 오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니 시대의 칼빈주의도 정상적인 칼빈주의라 하기 어렵다. 그들은 부흥이 소나기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부흥 즉 전도나 회심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라는 의미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의 결과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실존적인 고백이며, 찬양인 것이다. 피니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만 하면 부흥이나 회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오인한 당시의 초 칼빈주의의 오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까이함에 주도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해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 행하지만, 우리의 회심이나 부흥이 우리 자신의 결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행사하고 있는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의 칼빈주의의 오류는 피니의 신학에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sup>50)</sup>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라도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시대정신이 신속한 결과를 원하면 원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의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sup>51)</sup>. 이것이 우리의 방법만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이다.

50) 이장립 역,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2.

51) 이장립 역,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145-151.

## 2. 피니의 신학

어떤 이들은 묻는다. 피니는 나름대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았는가? 현대 교회는 피니가 쓴 부흥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 피니와 같이 기도의 영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피니 신학보다 피니의 사역의 중심을 보라. 그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불신자를 그리스도께 돌린 주의 일꾼이었다. 그가 미친 영향까지 피니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쓴 방법을 이후의 다른 세대가 잘못 쓰고 있으며, 그 방법이 세속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피니의 잘못이란 말인가?

레닌이 흘린 구 소련(蘇聯)인의 피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상 탓이 아닌가? 과격한 방법은 레닌에게서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을 제공한 사상은 이미 마르크스의 사상 속에 선재하고 있었다. 그 사상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 장에서 그의 신학을 논하는 이유는 그의 신학의 깊이를 가늠하기 보다 그의 사역의 중심에 서있는 신학을 이해함으로 그의 사역의 인본적인 성격이 그의 신학에 얼마나 뿌리박고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다.

### 1) 피니의 알미니안적 신학 원리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의지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주장이다.<sup>52)</sup>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의 이율배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러한 부분의 모순을 인간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기하는 우는 없어야 한다.<sup>53)</sup>

역사적으로 그 시초를 따라 알미니안주의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 1609년 알미니우스(Arminius)가 죽은 이후 더욱 발전한 알미니안주의는 1610년에 칼빈주의에 반대해 5개조를 제안했다. (1)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예지된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 결정된다. (2) 그리스도는

52) 김경진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29.

53) 이장립 역,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26-28.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화 목케 하셨다. 그러나 신자 외에는 아무도 실제로 죄사함을 누리지는 못 한다.” (3) 성령에 의한 중생은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다. (4) 은혜는 거 절될 수 있다. (5) 신자의 궁극적 인내는 부정될 수도 없으며, 또 적극적으로 긍정될 수도 없다.<sup>54)</sup>

(2)의 사항에 있어서 아르미니우스(Arminius)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인간이 어떤 면에서든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초칼빈주의 (ultra-Calvinism)로 불리는 고마루스(Francis Gomarus; 1563-1641)는 그 와 논쟁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만 속한 사역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55)</sup>

칼빈주의 신학은 비단 예정이라는 항목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인간 적 논리에 의해서는 모순처럼 보인다. 아르미니우스의 시대뿐 아니라 지속되는 교회사 속에서는 그와 같이 모순된 듯한 신학을 자신의 이성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그러나 칼빈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무 한하고 상상을 초월한 위엄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 엇이 이상하다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sup>56)</sup> 우리는 우리의 이성 에 부합하는 신학을 정립하려고 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신학을 겸허 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54) Ibid. 29-30. 위의 5가지 조항은 시간이 흐름으로 (2)에 속한 견해는 만인구원 론적으로 (3)에 속한 견해는 전적 부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5)는 성도의 견인 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로 돌트 회의에서는 알미니안 파가 주장한 5개조에 반대하는 5개조항을 만들었다. (1)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에 는 충분하지만 구속은 사실상 택자 즉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 한된다. (3)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 사를 필요로 한다. (4)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어서 그의 은혜는 불가항력 적이다. (5)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버림받을 수 없다.

55) N. V. Hope, "Francis Gomarus"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ed. Walter A. Elwel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s, 1994), 469-670. 이후 이 들의 논쟁이 발전하여 도르트 회의가 열려서 도르트에서 칼빈주의 5대교리로 불 리는 5개조를 작성하였는데, 고마루스는 타락전 예정을 주장하면서 이 5개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극단적 칼빈주의자로 대변된다.

56) 김경진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33.

워필드의 지적처럼 피니의 신학은 독창적이다. 그의 생애를 통한 경험과 이성적 논리가 그의 신학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가 역사를 거쳐 검증되고 수용된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 불신한 것은 그 자신의 논리가 어떤 누구의 논리보다 완벽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피니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루한 신학적 논증은 하지 않을 것이다. 피니의 신학이 알미니안인 점만 밝힐 것이고, 그것에 대한 칼빈주의적 견해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 2) 피니의 칭의와 구원

피니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된 순서를 그의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먼저 성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회심하며칠 후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재성과 충족성이 '그의 마음에 "계시" 되어 복음의 구원은 수락해야 할 선물로서 오직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 계시로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이 알 수 있는 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범죄하고 있다는 느낌 대신에 가슴에 사랑이 넘쳐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느낌도 없었고', 과거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칭의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sup>57)</sup>

이후 그는 로마서 설교에서 회심은 선택의 변화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을 생애 최고의 가치로 선택한 것이 증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회심하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선택하여' 살았다.<sup>58)</sup>

57)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10, 23-24. 양낙홍, 「찰스 피니의 생애와 사상」, 87-88.

58) Louis G. Parkhurst, ed., *Principles of Victor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1981). 양낙홍 역, 「승리의 원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45.

이후 그는 설교할 때마다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으며, 이 회개와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루터가 말하는 법정적인 의미의 칭의는 부인했다. 그는 회개와 믿음을 철저한 인간의 의지적 활동으로 보았으며,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근거로 보았다.<sup>59)</sup> 이 의지란 원죄에 물들지 아니한 것으로 인간은 죄짓는 습관이 있을 뿐이며, 중생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알미니안 5개조에서 본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은혜가 거절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데, 피니 역시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다. 피니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으로 하나님과 구원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판했다.<sup>60)</sup> 결국 피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교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피니 자신은 당시 만연하던 만인구원설<sup>61)</sup>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만인은총론(grace for all) 혹은 보편 구속<sup>62)</sup>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해 볼 때 바른 신학적 이해는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서의 사역 즉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성령의 성화는 다 같은 범위여야 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보편적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자에게만 미칠 수 없다. 요한 복음 17장 9절에서 아버지의 것과 아들의 것이 모두 동일한 데 구속의 범위만 달라질 수 없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15절에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아서 자기 양을 위해

59) 피영민, “찰스피니의 설교분석”, 116.

60) Charles G. Finney, *God's love for sinning World*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78). 피영민, “찰스 피니의 설교분석”, 115-116에서 재인용.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의 의지가 일반적인 선택을 하는 자연적 능력(natural ability)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구원을 선택하는 도덕적 능력(moral ability)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구분한 것을 피니는 “이치에도 닿지 않는다”고 일축해 버렸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신성모독적이고 운명론적이며 융통성이 없다는 표현을 썼다.

61) 김경진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183.

만인구원설(Universalism)은 비록 지옥의 정죄(淨罪)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교리이다.

62)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가 택자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된 견해이다.



죽으신 목자라고 자신을 칭하셨다. 그러나 모든 양을 위한 목자는 아니다. 63) 즉 그의 만민은총론은 그의 이성이 증거 하는 논리일 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닌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피니는 하나님의 예정을 예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으며, 속죄의 범위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며,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인냐에 따라 자기의 것이 된다고 보았다. 64) 그러나 예지 예정에 대한 답변으로 성경은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의 기뻐심(엡 1:5)이라고 말한다. 또한 선택을 은혜가 아닌 우리의 행위(행위 이전에 예지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근거)에 기초한다면 이것은 보상이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다. 또한 예지로 인한 예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65) 예지 예정을 받아들이는 피니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따른 행동에 자신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피니는 게일 목사의 견해에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말했는데, 첫째는 전적 부패의 교리와 둘째는 중생의 개념인데 여기서 그는 인간의 수동성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마지막은 속죄와 믿음에 관한 교리로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제한 속죄와 이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견해였다. 66)

그는 당시의 신학과(New School)의 다수에 영향을 주던 나다니엘 테일러(Nathaniel Taylor, 1786-1858)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테일러는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기독교적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67) 자유의지를 옹호하

---

63) 강귀봉 역, 「칼빈주의자가 본 알미니안주의」(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7), 68-75. 기타 그 외에도 보편구원론을 반증하는데 모두 10가지나 된다.

64) Charles G. Finney, *So Great Salvation*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65), 94. 피영민, “찰스피니의 설교분석”, 116. 에서 재인용.

65) 강귀봉 역, 「칼빈주의자가 본 알미니안주의」, 44-52. 여기서도 그는 알미니안주의의 예지예정에 대한 반박 12개로 하고 있다.

66) Finney, *Sermons on Important Subjects*, 139. 박용규, “찰스 피니와 완전주의”, 144-145에서 재인용. 그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게일의 설교가 그리스도께 초청하면서도 성령께서 자기를 회심시키도록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67) John D. Wodbridhe, Mark A. Noll and Nathan O. Hatch, *The Gospel in America: Themes in the Story of American Evangelicals* (Grand Rapids:

는 피니가 창의적인 신학을 전개했으며, 테일러의 견해를 직접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알미니안적 성향의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니의 칭의와 관련된 모든 신학적 견해는 그의 이성과 인본주의적 성향에 걸맞은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성경에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 3) 피니의 성화론

피니의 성화론은 오벌린의 완전주의 성화론과 더불어 많은 논의거리를 가진다.<sup>68)</sup> 일단 피니의 로마서 7장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성화를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조직신학에서 피니가 밝히고 있는 성화를 간단히 다루어 보면서 그의 완전성화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로마서 7장 설교를 통한 성화의 원리

피니는 그의 설교에서 이 로마서 7장<sup>69)</sup>에 나오는 지속적인 죄의 체험이 신자에게 속한 것인지 불신자에게 속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본문의 경험이 불신자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피니는 먼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7가지 원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원리는 피니가 성경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생체험과 논리에 의해 신앙을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자기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는 바로 알미니안이 취하는 인간 이성 신뢰의 태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니가 로마서 7장 설교에서 말하는 7가지 원리란 (1) 인간은 자기가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박용규 역, 「기독교와 미국」(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2), 46-47.

68) 박용규, “찰스 피니와 완전주의”, 132. 각주4에 최근의 피니와 오벌린(Oberlin) 완전주의에 관한 훌륭한 연구가 있다.

69) 롬 7: 24-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는 의지가 행위를 지배하며, 결코 자기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2)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중요성 때문에 집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국 행위는 선택한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중생이란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 거듭나면 그의 선택은 늘 옳은 쪽이 되며, 적어도 습관적으로 회심한 사람의 선택은 옳은 것이다. 또한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항상 옳은 것에 찬성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다. 또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5)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사람은 율법과 도덕적 선을 즐거워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찬동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6) 그러나 이러한 도덕에 대한 찬성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에 찬동하며 즐거워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이다. (7) 즉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할 수가 없어”라는 말은 “원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sup>70)</sup>

이러한 그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미친 어떠한 영향력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죄란 그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편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신적 은혜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신자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반해 본성의 부패성이 그 안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과 율법의 의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sup>71)</sup> 그러나 오히려 피니는 인간이 모두 선을 기뻐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원리에서 인간이 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이나 혹은 죄에 대한 어떤 고려도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70) 양낙홍 역, 「승리의 원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144-147.

71)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7. trans. T. H. L. Parker; ed.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5), 221-222.

피니가 바울이 고백한 구절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면 이것은 불신자의 경험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행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소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기가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경험과 일치한다. 즉 “나는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의 의지가 반대로 기울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죄인의 경험이 아니라면 과연 죄인과 회심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죄를 깨달으나 육신적 마음이 승리하는 죄인의 경험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이다. 진정한 회심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이라고 그는 이해한다. 72)

그러나 이에 비해 칼빈은 이 모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으로 철저히 스스로를 살펴보면 자신의 본성에 곤고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랑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 칼빈은 피니를 비판하듯(그가 역사 속에 선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주의자들의 무감각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절규를 기록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하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73)

칼빈은 바울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이 끝맺음을 통해 신자들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결코 완전한 의의 목표를 이룰 수 없으며, 늘 영육 간에 강건한 투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말한다. 74)

피니의 신학에서 죄는 자발적인 행위였으며 이론상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완전한 성화도 우리가 죄를 피할 수만 있다면 당연한 결론이다. 피니는 인간의 무능력이 나타나는 본문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인간의 회심이후 그 의지를 무시하는 이러한 본문에 굉장히 논쟁적이 되어 그의 견해를 피력하는데 몹시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완전 성화를 저변에서 옹호하고 있다.

72) 양낙홍 역, 「승리의 원리」, 145-161.

73)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7, 229-230.

74) Ibid. 230.

바울의 1인칭이 일반적인 예증일 뿐이라는 피니의 주장은 온전한 송영으로 그의 진술을 마치는 바울의 생생한 진술 앞에서 맥을 잃는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자신의 낮아짐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을 피니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함으로 끝을 낸다. 피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강인한 능력에 더욱 큰 의의를 둔 인본주의자였다.

## (2) 완전 성화론(perfectionism)

피니의 성화에 관한 견해를 일컬어 완전주의라고 부른다.<sup>75)</sup> 그는 인간이 회개할 능력이 있으며, 그것으로 칭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성화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여 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는 명령은 인간이 복종할 가능성을 시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피니가 말하는 완전은 육체나 정신의 욕망이나 실수와 편견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지상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sup>76)</sup>

그리고 그의 성화는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에 힘입어서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고, 이것을 위해 주신 예비적 장치가 복음이다.<sup>77)</sup> 그러므로 각 개인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므로, 성화는 각 인간의 책임이다.

피니의 이런 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 달린 성화론이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온전이라고 봄으로서 다분히 율법적인 성화론을 내세웠다. 성화 또한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피니는 성화를 “도덕적인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sup>78)</sup>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도덕적 명령을 다 수행할

75)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Boston: Crocker and Brewster, 1847), 420. 피니는 완전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든 천상적 마음이든, 믿음 혹은 소망의 완전한 확신이든 전적 헌신의 상태이든, 원하는 대로 부르라” 는 이 모든 것을 동일한 뜻으로 이해한다.

76) Ibid. 360.

77) Ibid. 360, 376.

78) Ibid. 759-760.

때에만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의 노력은 완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 된다. 79) 과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가? 또한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가? 또한 도덕법만 수행하면 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피니의 신학과 사역은 대단히 도덕적이다. 피니의 시대에 노예제도 문제는 남부와 북부의 첨예한 대립 문제였다. 그러나 피니는 성결과 성화의 개념을 윤리적인 부분에 적용시킴으로서 당시 인종 차별과 주류 판매, 노예제도와 사회악에 대한 복음주의의 반대운동을 피니와 함께한 완전주의자들(“가일층 높고 보다 견실한 기독교적 삶의 형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믿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였다. 80)

피니는 칼빈주의자들 특히 남부의 칼빈주의자들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부흥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북부의 모든 지역은 다 부흥의 영향권내에 들었고, 신적인 능력이 온 나라를 휩쓰는 것 같았는데,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 때문에 그것이 봉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노예제도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슬피 그곳을 떠나 가셨다고 말한다. 그는 남부인의 마음에는 성령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쪽의 다른 지방에서는 약 50만 명의 회심자가 생겼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81) 즉 그는 성화란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로 보았기 때문에 노예제도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도 개입했던 것이며, 이러한 도덕적인 성화가 없는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거나 성화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한다. 로마서 설교에서 주장하듯이 그는 칭의 받은 자는 누구든지 완전할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조건이며 성화는 칭의를 증명하는 선행조건이 된다. 82)

또 다른 피니의 견해는 칭의와 성화를 동일한 선상에 놓음으로서 그에 부분적으로 성화된 신자란 있을 수 없다. 그는 점진적 성화를 부정한

79) 박용규, “찰스 피니와 완전주의”, 154-155.

80) 박용규 역, 「기독교와 미국」, 47-48.

81) 피니, 「자서전」, 241.

82)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108-155, 107-555, 557.

다. 우리는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 뿐이라고 한다.<sup>83)</sup> 그는 막연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점진적 성화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가능한 신학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에 있는 성화관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말하는 의는 법정적 칭의로서 우리의 모습의 어떤 것이 변화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모습으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칼빈주의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간이 더욱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sup>84)</sup>

그는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칼빈주의의 성화론이 알미니안적이며 율법적인 성화관이라고 도전했다.<sup>85)</sup> 그러나 피니는 삶 속에 완전함을 드러내야만 완전한 성화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성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 믿음으로 성화까지 주장하므로 그가 말하는 율법적인 성화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결과가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어드리기 원하는 신앙고백으로서의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성화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완전 성화를 위해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희망을 완전 획득의 주요 동기로 보았다.<sup>86)</sup>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한다.<sup>87)</sup> 믿음으로 성화를

---

83) B. B. Warfield, *Studies in Perfecti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139.

8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tran. Ford Les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vol. III, vii, 1.

85) Charles G. Finney, *Sanctification*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박광철 역. 「성결의 비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9, 12-13.

86) Charles G. Finney,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583, 586-587.

87) Charles G. Finney, *Sanctification*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박광철 역. 「성결의 비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14.

이루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과 또한 그럼에도 순종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을 이루는 견해이다. 88)

### 3. 19세기 시대 정신이 피니의 사역과 신학에 미친 영향

미국은 독립전쟁(1770-1800)을 전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의 토대가 된 건국 이념은 신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게서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고 선포하였다. 인간이 천부적 권리를 가졌다는 신념과 개인적 행복 추구 권리의 신념, 모든 인간의 평등, 개인의 자유가 사회 복지에 필수적이라는 신념을 개국 선조들은 이어 받았다.

바로 이러한 독립 정신의 영향을 받은 사고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립되는 운동들을 재촉하였다. 특히 전적 부패의 개념은 개개인이 자기 운명을 창출할 만한 본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또한 택자에게 국한된다는 하나님의 은총은 독립선언서가 말한 평등성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으며, 불가항력적 은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악하다는 미국인의 사고에 어긋나게 되었다. 또한 성화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되었다. 즉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사회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낙관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개혁주의의 노선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89)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토마스 페인,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주도자들처럼 반기독교적 입장을 취했다. 90) 인간이 아무 것도 구원에 관여할 수 없는 칼빈주의는 현세적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철저히 믿는 개척자들에게는 불편한 신학이었다. 91) 그래서 1791년에 미국 연방 헌법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정교분리를 헌법화하였다. 이러한 정교분리 움직임에 일조했던 인물들이 바로 계몽주의와 자연신론에 영향을 받았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었다. 92)

88) 박용규, “찰스 피니와 완전주의”, 157.

89) 박용규 역, 『기독교와 미국』, 38-39.

90)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48-49.

91) William Warren Sweet,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ulture: 1765-184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Ibid. 50-51에서 재인용.

92) 박용규, “19세기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그말씀』 1996년 11월호, 121.



1800년대 미국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넘지 못했다. 당시 방종과 폭동, 안식일을 모독함이 가득했고, 술집도 가득차게 되었다. 독립혁명 이후 불신의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이제 부도덕과 불경건은 가시적이 되었고, 전통신앙에서 많은 사람이 돌이켰다. 1825년에는 자유출판 협회가 조직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미국은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게 되었다.<sup>93)</sup>

이러한 시대에 대한 반응은 기독교 내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옛 선조의 신앙에 돌아가려는(get back) 욕구였으며, 또 하나는 19세기 미국 문화의 지배적인 정신과 친화하려는(get with) 경향이었다. 피니는 후자에 속한 신학을 추구하였다.<sup>94)</sup>

그러한 시대에 피니가 서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피니는 나다니엘 테일러(1786-1857)의 사상을 흡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기독교적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견해에 마음이 끌렸다. 열정적인 개인의 노력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sup>95)</sup> 바로 이 당시 보통 미국인의 사고와 같이 말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낙관주의가 태동하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독립혁명 이후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조류와 어울리지 않자 미국 기독교는 인간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이 수정되었다.

피니가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신학을 주창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혁주의적 견해가 신학과 사역의 성공에 있어서 알미니안에게 밀리게 되었다. 즉 미국의 개척자들이 선택한 신학은 알미니안적이었다. 개혁주의가 소수에게 구원을 주는 귀족정이라면, 모두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는 알미니안주의는 민주정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민주정은 얼마나 유사한 신학인가?<sup>96)</sup> 독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 시민에 의해 선

93) Ibid. 122-124.

94) 박용규 역, 「기독교와 미국」, 57-59.

95) Ibid. 46-48.

96) William Warren Sweet, *Revivalism in America: its Origin, Growth and Decline*

택되는 하나님인 것이다. 이전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시민을 선택하셨으나 이제 피니의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sup>97)</sup>

칼빈주의는 신학적 논쟁으로 미국에서 쇠퇴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가 독립전쟁의 자유정신을 배격했기 때문에 미국인의 삶 속에서 배제되었다.<sup>98)</sup> 이제 인간은 인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어떠한 신학도 용납하지 않는다.

1800년대는 신학적 단일성이 파괴되고, 이후 19세기말에는 자유주의, 세대주의, 오순절주의 등의 사상이 신학적 단일성을 파괴하는 것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복음주의적 시각은 약화되었고,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도 달라졌다. 사회를 주도하던 교회는 이제 그 자리를 국가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적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때가 되었으며, 삶이 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피니의 신학은 19세기의 시대정신과 부합된다. 그는 하나님을 독립 전쟁의 자유 정신에 입각하여 선택하였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미국의 황금 시기에 누리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있을 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나약한 인간은 없다. 인간은 얼마나 멋진 자리에서 있는가? 얼마나 이 알미니안 주의자가 말하는 구원의 민주주의는 이성에 부합되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의 체험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앞세운 인간의 경험에 대한 낙관적 이해가 저변에 깔려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계적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던 바울도 하나님은 꺾으실 수 있으셨듯이 피니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나 그는 칼빈주의의 기다림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상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독창적인 인물이 아니라, 19세기 시대정신의 충실한 아들이다.

---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5), 128.

97)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52.

98) Mark A. Noll, Nathan Hatch and George Marsden, *The Search for Christian America* (Westchester, III.: Crossway, 1983), 118.

#### 4. 피니의 신학과 사역이 이후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

피니가 견지했던 알미니안 신학이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하나님을 등한시한 신학과 사역에는 후세대가 피니의 부흥론과 조직신학을 읽고 그의 인본적인 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피니의 신학과 새로운 도구들은 후 세대에 부흥의 도구가 되었으며, 유익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인간을 앞세운 알미니안주의가 과연 승승장구하여 교회사에 큰 기여를 하였을까?

##### 1) 미국 장로교 교단 분리의 원인제공

피니가 미친 영향력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장로교 분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sup>99)</sup> 비단 피니뿐 아니라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칼빈주의 즉 미국 장로교 내에서 두 가지 큰 주류가 생겨났다. 그것은 이 부흥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로 부흥에 반대하는 학파는 구학파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신학파는 친 부흥적인 성향이 있는 북부지방 계열이었다.<sup>100)</sup>

물론 피니의 신학이나 부흥사역이 이러한 교단분리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니라 하나, 그 원인이 되는 포용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학파는 신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신학에 대한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신학적인 이견을 가진 부흥에 대해 그 성과를 무론 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

이러한 미국 장로교의 분열 시기를 고찰한 롱필드 교수는 장로교 논쟁사에 있어서 6명의 인물을 논하는데, 그레샴 메이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헨리 슬로언 코핀, 클라렌스 맥카트니, 찰스 어드만, 로버트 스피어의 생애를 검토하면서 지역적인 남북의 특색을 잘 설명하고 있다.<sup>101)</sup>

99) 양낙홍, “찰스 피니의 생애와 사상”, 99.

100) David F. Wells.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박용규 역, 「개혁주의 신학시리즈 1; 프린스턴 신학」(서울: 엠마오, 1992), 17-19.

101)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이 은선 역, 「미국 장로교회 논쟁사」(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2), 16.

19세기의 미국교회는 여러모로 격변기를 겪었는데, 학문과 과학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그에 반해 칼빈주의는 낡은 옷과 같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피니는 이러한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복음을 포장하고,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선불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방법론은 큰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그의 변화된 방법론에는 신학의 변질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1922-1935년까지 있었던 미장로교회의 논쟁은 신학적 내용보다 다른 신학적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견차였다. 실제 미장로교 논쟁사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신학의 견해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용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였다. 결국 미장로교단(PCUSA)의 대다수 총회원들은 이견을 가진 신학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포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분리한 정통 미장로교(OPC)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 장로교단의 분리의 핵심이다.<sup>102)</sup>

이러한 포용성 있는 신학적 관점이 바로 피니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구원할수록 더 좋은 신학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교조주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과 불관용은 합리주의에 의해 일소되었다. 또한 각 교파 내에서 신앙고백의 일치와 그림자 정도는 필요하지만 과거 교회 내에서 지성적인 훈련을 위한 신학적인 합리적인 논쟁은 불화와 분리의 원천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103)</sup> 이후 수적 부흥은 신학적 순수성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데, 이 숫자를 중요시하는 포용성은 후에 더 큰 신학적 차이도 용납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으며, 이러한 포용성이 더 많은 다수를 용납하려 하여 자유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바로 이 포용성이 분리의 씨가 된 것이다.

피니 시대에도 대다수 피니에 동조한 목사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피니의 신학이 칼빈주의가 아님을 알았고, 그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들으며 피니의 부흥운동에 동조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래도 피니를 축복하신다. 피니와 함께 일하시고, 열매를 주신

102) Ibid. 「미국 장로교회 논쟁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03) Richard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83.

다.”는 이유로 포용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 사역의 열매가 알미니안주의를 상쇄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포용주의의 결말은 결국 신학적 차이에 의한 분리로 가게 된다. 교회는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피니는 이렇게 말한다. “이론은 소용이 없다. 그것은 생생한 현실이었던 것이다.”<sup>104)</sup>

## 2) 교회의 세속화와 실용주의

피니가 기도와 설교의 역동성을 강조한 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니고 있던 나름대로의 신학의 건전성은 이후에 전수되지 않았으며, 그 자신의 사역의 원리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의 원리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로 변질되었다.

사상들이 무엇보다 무엇인가에 구체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 교리와 사상의 세련에 대한 능멸, 사상가들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현대의 언론인들 같이-사람들의 그늘에 이러한 것들이 가려진 것은 20세기가 그 기원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기독교의 유산이다.<sup>105)</sup>

또한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 신학일 바에는 더욱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실용적인 테크닉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신학이 유용한 것이 되었다. 복음주의와 합해져서 이러한 실용주의는 더 많은 사람을 불타는 세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선한 것으로 바뀌어졌다. 또한 회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음 구매자로서의 청중을 더욱 연구하는 실용주의적인 방식의 전략이 짜여지고 있다.<sup>106)</sup>

이 실용주의는 하나의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들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널리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신학적 무장보다는 회심을 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취급받게 되었다.<sup>107)</sup> 이러한 신조는 결국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용납하게 되는

104)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69.

105)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80-81.

106) Mark A. Noll, *The Search for Christian America*, 83-84.

것이다. 현대의 복음은 코카콜라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맛보였는지를 자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빌리 선데이는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해서 강단에서 쿵쿵 구르며, 의자를 부수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효과를 위한 방법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조야한 것으로 치부하게끔 하였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며,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의 바른 사용”이 더욱 절실했던 것이다.<sup>108)</sup>

이제 피니의 인본주의적 신학은 기독교를 사람의 일로 만들었으며, 그것은 그 신학 속에 담겨져 있는 상업적인 요소만으로 축소되었다.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발 하나를 파는 것과 같아졌다. 예수는 상품이 되고, 죄인은 구매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는 이 상품을 멋지게 파는 마케팅 대리인이 된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인간은 빛진 자가 아니라 구매자들이 되었다.”<sup>109)</sup>

현대교회는 양적 성장이 선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적 발상의 근거에 피니가 있다. 피니의 다양한 부흥의 수단들과 과격적인 설교 양식, 그의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그 효용가치가 당시 인정되었다.

수적 부흥을 선호하는 신학적 포용성은 신학의 자유화와 연결되기 쉬우며, 수적 부흥의 선호는 말씀과 교리에 대한 강조보다 방법 중심적이 되기 쉽다. 모든 것이 도구화된다. 하나님도 상품화되는 것이다. 효과만 좋다면 어떤 도구에라도 하나님을 삽입한다. 그리하여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끄는 학문이 되는 것이다.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설교는 무시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라지는 윤리적인 설교가 판을 친다. TV설교와 상담, 적극적인 사고방식, 연예인 간증이 설교단을 떼우게 된다. 이것이 피니가 미친 간접적인 영향이다.

### 3) 체험주의

오늘날 감성의 종교를 다루는 신학교는 후원을 받고, 참다운 학문으로

---

107) Hofstadter,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109.

108) Ibid. 121-122.

109) Ibid. 122.

서 “신학”을 다루는 신학교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적 종교를 다루는 신학교의 핵심은 “체험”이다. 피니가 말했던 바로 그 성령 “체험”이 없는 신학과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들 또한 믿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체험은 그것 자체로서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니다.<sup>110)</sup>

한국 교회도 신학을 다루는 책들은 팔리지 않지만, 간증을 다루는 책들은 잘 팔린다. 세미나와 부흥전략에 관한 책들은 잘 팔리지만 고전적이고, 무게있는 신학 저서들은 늘 목회자나 일반 성도에게 외면 당하는 실정이다. 오늘날은 개인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만이 참 복음이 되었다.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것을 문제삼아 참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만났다니까요.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객관적 증거를 필요치 않은 시기가 되었다.

피니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범죄하는 느낌 대신에 사랑이 넘치는 칭의의 경험을 했다<sup>111)</sup>. 단지 그의 느낌으로 말이다. 또한 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에 어울리지 않게 성화까지 논리로 정리할 수 있었던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증거하지 못했다.<sup>112)</sup> 피니의 이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체험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신학이지요. 그러나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실재는 다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말씀의 해석과 적용인 설교 대신에 자신의 감정이 주는 은혜의 적용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 속에 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신학이란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sup>113)</sup> 피니가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또한 성령세례를 강조하였던 바로 그런 체험주의가 바로 이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주의적 경건주의도 이러한 맥락에 서있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

110) Martin E. Marty, *the Pro and Con Book of Religious America; A Bicentennial Argument* (Waco: Word, 1975), 118.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224-225에서 재인용.

111) 양낙홍 역, 「찰스 피니의 자서전」, 24.

112) Ibid. 27.

113)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307.

그들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도 뵈지 못했으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두려운 그 하나님이 자신과 친근하고, 가깝게 만나주신다는 것에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외적으로 주신 성경은 초보적인 계시처럼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계시의 근원은 성경에서 끝나야 한다.<sup>114)</sup>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위해 체험할 때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체험이 아니라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되며, 성경을 통해 되며, 세례를 통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주시는 방안이다.<sup>115)</sup>

신학적 포용성은 신학적 자유화와 연결된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체험에 잘 맞아떨어지는 신학이다. 독일의 경건주의가 자유주의의 선봉이 되었듯이 피니의 인간 중심적인 신학은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는 체험 위주의 신학이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기독교적 상담의 강조와 연예인의 간증, 광란적인 부흥회 등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실례일 뿐이다.

## 맺으며

모든 현대 복음주의가 지닌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문제가 다 피니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적용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로부터 흘러 나오는 인본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중생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주를 알 수만 있다면, 세속적인 기반 위에 서있는 마케팅 전략도 용납하게 되었다. 교회는 분리를 위한 포용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게 되었고, 실용주의적 방법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적어도 피니가 지향했던 알미니안주의가 비판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피니의 사역과 그 사역에 나타난 신학이 인간의지와 자율성을 강조하

---

114) Ibid. 309-310.

115) Ibid. 249.



고, 인간과 구원을 중시하는 알미니안주의이며, 그 알미니안주의는 미국의 건국의 시대정신인 인본주의와 동일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알미니안주의가 미국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참된 신학으로서 칼빈주의는 인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에 비해 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기도가 강렬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대나 피니의 시거나 알미니안에 대한 많은 비판 속에서도 칼빈주의 신학은 신학의 정당성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피니에 대한 “신학 비판” 속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향한 “삶에 대한 비판”을 함께 듣게 된다.

현재 미국 교회사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피니의 신학과 부흥의 방법론들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 안에 무비판적으로 들어와 자리 매김을 하고있다. 앞에서 다룬 피니가 미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이 단지 미국의 영향만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신학은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원리에 맞는 더 능력있는 사역 방법을 창조하기 바란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더욱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기도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테크닉을 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들의 무릎이 더 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참다운 신학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경박한 기독교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매료시키지 못한다. 그를 따르는 후배들은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피니의 방법들만 사용한다. 그 방법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칼빈주의의 신념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교리 설교가 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듯이, 오늘날 참다운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일어날 줄을 믿는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테크닉에 집중된 오늘날의 부흥과 개혁의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진실로 성경의 깊은 교훈에 가까이 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피니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많은 학자들과 현대의 부흥가들이 피니에 대해 평하는 다양한 진술들을 대했었다. 과연 로이드 존스의 평가

가 옳은 입장인가? 아니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평가가 옳은 입장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다룬 신학적 입장으로 본다면 피니는 칼빈주의의 신본적인 정신을 약화시키고, 오늘날 많은 것을 포용하게 만든 세속화의 장본인이며, 비판받아야 할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전체적인 파급효과와 이후에 우리가 강조한 비판받아야 할 오류가 있음에도 그가 맺은 사역의 열매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디와 비교해서 그가 회심한 사람들의 80-90%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의 불을 지핀 그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론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구령의 열정과 기도의 마음은 현대 교회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 피니는 오늘날의 알미니안적 복음주의를 태동시킨 사역자의 한사람으로서 비판받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의 사역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시대에 바른 신학을 주창하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셨을 지 모르는 것이다. 피니와 같이 인본적인 신학을 주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보다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인정하는 보수 신학자들의 경건이 더 크고 놀라운 때라야 진정한 칼빈주의적 비판이 그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현대에 한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복음주의 신앙의 근저에 이러한 알미니안적인 경건과 사역방법이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피니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신학이나 사역이나 인간을 우선 순위에 놓고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깨닫는 것이다. 알미니안주의는 그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신학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 피니의 작품들

-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Revival of Religion*. 김원주 역. 「찰스 피니의 부흥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Finney, Charles G. *God's Love for a Sinning World*.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66.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89.
- Finney, Charles G. *Principles of Christian Obidience*.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 김원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Finney, Charles G. *Charles G. Memoirs of Reu. Charles G. Finne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76.
- Finney, Charles G. *Finney's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66.
- Finney, Charles G. *God's Love for Sinning World*. Grand Rapids: Wm. B. Eerdmans, 1878.
-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Revival of Religion*. Chicago: Moody Press. 홍성철 역. 「진정한 부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Revival of Religion*. 김원주 역. 「찰스 피니의 부흥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Boston: Crocker and Brewster, 1847.
- Finney, Charles G. *Lectures to Professing Christians*.
- Finney, Charles G. *Power from on High*. London: Victory Press, 1950.
- Finney, Charles G. *Principles of Holiness*. ed. Louis G. Parkhurst, Jr.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1984.
- Finney, Charles G. *Principles of Prayer*. ed. Louis G. Parkhurst, Jr.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1980.
- Finney, Charles G. *Principles of Union with Christ*. ed. by Louis G. Parkhurst,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1985.

- Finney, Charles G. *Principles of Victory*. ed. Louis G. Parkhust,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Inc., 1981. 「승리의 원리」 양낙흥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Finney, Charles G. *Sanctification*.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박광철 역. 「성결의 비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 Finney, Charles G. *Skeletons of a Course of Theological Lectures*. London: Milner and Sowerrby, N. d.
- Finney, Charles G. *So Great Salvation*.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65.
- Finney, Charles G. *The Autobiography of Charles G. Finney*. ed. Helin Wessel, Bethany House Publishers, 1977. 양낙흥 역. 「찰스피니의 자서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Finney, Charles G. *The Character, Claims, and Practical Workings of Freemasonry*.
- Finney, Charles G. *The Guilt of Sin*.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65, 1982.
- Finney, Charles G. *The Promise of the Spirit*. ed. Timothy L. Smith.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80.
- Finney, Charles G. *True and False Repentance*.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66, 1975.
- Finney, Charles G. *True Saint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8.
- Finney, Charles G. *Victory over the World*.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8.

## 2. 이번 논문에 참고한 서적

- Ahlstrom, Sudney E. ed., *Theology in America: the major protestant voices from puritanism to Neo-orthodoxy*. Indianapolis: The Bobbs- Merrill Co., 1967.
- Ahlstrom, Sydney E.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A Division of Doubleday & Co., 1975.
- Calvin, Joh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7. trans. T.H.L. Parker; ed. D.W. Torrance and T.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tran. Ford Les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vol. III, vii, 1.
- Duewel, Wesley L. *Revival Fire*. Michigan: Grand Rapids, 1995. 안보현 역,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Hardman, Keith. J. *Charles Grandison Finney : 1792-1875 revivalist and reform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 Hofstadter, Richard. *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1963.
- Hofstater. *America at 1750: A Social History*, New York : Vintage., 1973.
- Hope, N. V. "Fraacis Gomarus"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ed. Walter A. Elwell (Grand Rapids: Baker Book Houes, 1994), 469-670.
- Horton. Michael Scott, *Made in America?* Baker Book House Company, 1992.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 나침반사, 1996.
- Knneth, Cauthen. *The Impact of American Religious Liberalism*.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2.
- Lloyd-Jones, D. M. *The Puritan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서문강 역.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Longfield, Bradley J.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이은선 역, 「미국

- 장로교회 논쟁사,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2.
- Marsden, George M. 「미국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이해」,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Marsden, George M. *Fa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Marty, Martin E. *The Pro and Con Book of Religious America: A Bicentennial ARGument*. Waco: Word, 1975.
- Ness, Christopher. *An Antidote the Arminianism*. Sovereign Grace Publishers, 1974. 강귀봉 역, 「칼빈주의가 본 알미니안 주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 Packer, J. 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England: Inter-Varsity Fellowship, 1961. 이장립 역,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Sell, Alan P. F. *The Great Debate: Calvinism, Arminianism and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김경진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Sweet, William Warren. *Religion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Culture: 1765-184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Sweet, William Warren. *Revivalism in America; its origin, growth and declin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5.
- Sweet, William Warren.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김기달 역. 「미국 교회사」 서울: 보이스사, 1994.
- Warfield, B. B. *Studies in Perfecti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1.
- Wells, David F.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박용규 역. 「개혁주의 신학시리즈 1; 프린스턴 신학」, 서울: 엠마오, 1992.
- Wodbridhe, John D., Mark A. Noll and Nathan O. Hatch, *The Gospel in America: Themes in the Story of American Evangelical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박용규 역, 「기독교와 미국」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2.

## Articles

루이스 드러몬드. “설교는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말씀」 1996년 11월호.

박용규. “19세기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그말씀」 1996년 11월호.

박용규. “찰스피니와 완전주의”, 「신학지남」 통권 234호 1992년 겨울호.

양낙홍. “찰스피니의 생애와 사상”, 「그말씀」 1996년 11월호.

찰스 피니.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말씀」 1996년 11월호.

찰스 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말씀」 1996년 11월호.

피영민. “찰스피니의 설교분석”, 「그말씀」 1996년 11월호.

### 3. 피니 연구에 도움이 될 기타 참고 문헌

- Abell, Aron Ignatius. *Urban Impact on American Protestantism 1865-1900*. Hamden: Archon, 1962.
- Billington, Ray Allen. *The Protestant Crusade 1800-1860*. New York: Rinehart & Co., 1952.
- Bruner, Frederic Dal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er, 1976.
- Conforti, Joseph. *Samuel Hopkins and The New Divinity Movement: Calvinism*. Grand Rapids: Erdmans, 1981.
- Coppedge, Allan. "Entire Sanctification in Early America Methodism: 1912-1835", JWT 13, Spring, 1978.
- Cowles, Henry. "Lectures on Systematic Theology", Oberlin, 1846.
- Cowles, Henry. "The Holiness of Christians in this Present Life", Oberlin, 1840.
- Cox, Harvey. *Religion in the Secular City: Toward a Postmodern Theolog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4.
- Cross, Whitney R. *The Burn-Over District: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Enthusiastic Religion in Western New York, 1800-1850*,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 Dayton, Donald.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76.
- Dayton, Donald.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6.
- Drummond, Lewis A. *The Life and Ministry of Charles G. Finney*.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 1985.
- Fletcher, Robert Samuel. *History of Oberlin College I*, Oberlin: Oberlin College, 1943.
- Foster, Frank H. *A Genetic History of New England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7,
- Gay, Peter. *The Enlightenment: An Interpretation. vol 1, "The Rise of*



- Modern Paganism*". New York : Norton, 1966.
- Giradeau, John L. *Calvinism & Evangelical Arminianism*. Harrlsonburg: Sprinkle Publications, 1984.
- Gresham, John Leroy. *Charles G. Finney's doctrine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Peabody: Hendrickson Pub., 1989.
- Harding, William Henry ed. *Revivals of Religion*, London: Morgan and Scott Ltd., 1910.
- Harouturian, Joseph. *Piety versus Moralism: The passing of New England Theology*. New York: Harper and Sons, 1932.
- Hudson, S. Winthrop. *Religion in America*.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3.
- James H. Snylie. *American presbyterian; a pictorial history*. Philadelphia: P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1985.
- Johnson, James E. "Charles G. Finney and a Theology of Revivalism", *Church History* 38, September 1969.
- Johnson, James E. *The Life of Charles Grandison Finney*. New York: University of Syracuse, 1959.
- Leonard, Bill J. "Getting Saved in America: Conversion Event in a Pluralistic Culture", *Journal of Review & Expositor* 82, Winter 1985.
- Marsden, George M. *Evangelicalism and Modern America*. Grand Rapids: Erdmans, 1984.
- Marsden, George M. *The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 A case Study of Theology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 McLoughlin, William G. & Robert N. Bellah. *Religion in America*. Boston: Bescon Press, 1968.
- McLouglin, William G. *Modern Revivalism: Charles Grandison Finney to Billy Graham*. New York, 1959.
- Moorhead, James H. "Social Reform and the Divided Conscience of

- Antebellum Protestantism*", Church History 48 (December 1979), 416-430
- Noll, Mark A., Nathan Hatch, George Marsden. *The Search for Christian America*. Westchester, III. : Crossway, 1983.
- Noll, Mark. *The Princeto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Peter, John L. *Christian Perfection and American Methodism*. Nashville, 1956.
- Raith, Jill. *Christian Spirituality: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London: SCM Press Ltd. , 1989.
- Shelton, Smith., Robert T. Handy and Lefferts A. Loetscher. *American. New Christianit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with representative documents*. vol.2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3.
- Smith, Timothy L.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Baltimore: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 Smith, Timothy L. *"The Doctrine of the Sanctifying Spirit"*.
- Smith, Timothy L. *"Major articles of The Oberlin Evangelists over Perfectionism were as follows Asa Mahan, Scriptur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Oberlin, 1939.
- Sweet, Leonard I. *"The View of Man Inherent in New Measures Revivalism"*, Church History 45, June 1976.
- Traey, Joseph. *The Great Awaken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 Vulgamore, Melvin L. *"Charles G. Finney: Catalyst in the Dissolution of American Calvinism"*, Reformed Review 17, June 1964.
- Wright, George W. *Charles G. Finney*. Boston, 1891.
- Wuthnow, Robert. *The Struggle for America's Soul: evangelicals, liberals, and secular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1892.